

# 조계종, 폐교 위기 탈북자 학교 지원

## 자승 스님 등 17일 삼정학교에 1억원 기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 스님들이 주축이 돼 북한 이탈주민자녀의 대안학교인 삼정학교(교장 채경희) 운영을 지원한다.

스님들은 12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억1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삼정학교는 2010년 3명의 전교생으로 이루어진 삼정학교로 개교한 후, 현재 3개 학급 50여명의 초등학생의 교육·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계의 보충금 후원이 중지되면서 힘들어진 운영 탓에 내년에는 학교를 폐교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 소식을 접한 스님들은 각기 모금 활동을 전개해 1억여원의 학교 운영기금을 모았다. 5천만원에 쾌척한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정만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각 1천만원, 향림사 주지 일관 스님이 2천만원, 정책특보단장 정년 스님이 5백만원을 기부했다. 자승 스님은 “2억 원의 임대보증금 중 모자란 8천5백만원은 지속적인 모금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나”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인사 스님들이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대안학교인 삼정학교에 운영기금 1억1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 조계종 균종교구 “균승 수급 이상 없다”

## 17일 성명 발표... 천태종 측 주장 반박

조계종 균종교구(교구장 정우)는 “균승 공급이 해마다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다”는 천태종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균종교구는 12월 17일 성명을 통해 “천태종이 주장한 균승 수급 인력 50%, 해마다 미달 사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최근 5년 동안 매년 11~14명의 균승을 파송해왔다. 이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인력의 96%를 충족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균종교구에 따르면 조계종은 2010년 14명, 2011년 14명, 2012년 12명, 2013년 11명, 2014년 13명 등 총 64명의 균승을 파송

했다. 국방부의 균승 파송 TO는 67명이다. 균종교구는 “파송되지 않은 3인은 우수자원을 확보 차원에서 검증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연도 충족되지 못한 인력은 다음해에 추가 반영해 파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균종교구는 “조계종 종헌종범에 따라 선발된 균승과 군사철을 관리, 군포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예비 균승자원 역시 60여명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조계종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

## 18명에게 1억4천여 만원 지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15년 종단 장학금에 대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국내 8명, 해외 4명, 사찰승가대학원 6명 등 총 18명으로 국내 연간 4700만원, 해외 연간 8400만

원, 사찰승가대학원 연간 1200만원으로 총 1억4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발된 종단 장학금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각 학교의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감안해 매 학기별로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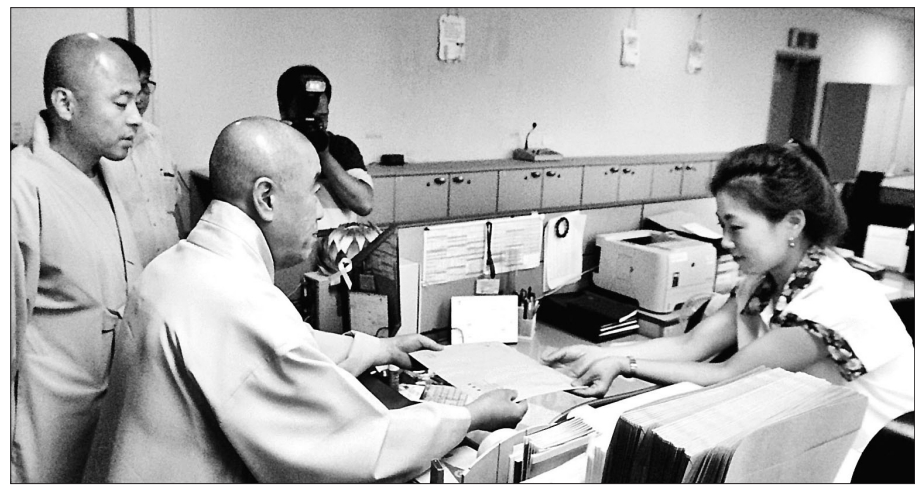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은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2명의 장학금을 선발했다.

신성민 기자

# 갈등·내홍... 내년엔 화합·소통을

## 2014 주요 종단 결산

2014년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의 한해는 갈등과 내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선학원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제2교구본사 주지 인선을 놓고도 마찰을 겪었다. 태고종 역시 총무원장과 반대 세력이 나뉘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주요 종단들의 이 같은 갈등 상황은 대부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어 불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선학원 이사와 감사 스님들이 6월 30일 조계종에 제직원을 전달하고 있다. 법인관리법으로 빚어진 갈등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설수의 홍수’ 속 조계종

조계종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정규를 제정하고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신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스님 등이 문서 견책으로 낮은 형량을 호계원에서 받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음주 범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좌 2명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고, 급기야 총무원 호법부는 급속령에 가까운 지침을 일선 사찰에 하달하기도 했다.

본사 주지 인선을 놓고도 심각한 내부 마찰을 빚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3월~5월 동안 전 주지 성문 스님과 종정경실장 효경 스님이 주지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 급기야는 어렵게 만든 총림을 해제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원로회의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덕문 스님이 동화사 주지로 부임하고 종정 진제 스님이 유시를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도 주지 인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은 지난 8월 10일 문중 의사결정기구인 용주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내렸으나 이는 곧 진위 논란에까지 제기되며 내용을 겪었다. 선거를 거

### 선지식 송담 스님 탈종 ‘충격’ 법인법 갈등... 선학원 독자행보 스님들 범계행위 여건 대책없나 주요종단·단체 대형불사 시작

쳐 성월 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후속 주지 인선이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이어져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이 같은 문중 내홍, 법인관리법 등에 회의 의를 느낀 송담 스님은 ‘조계종 탈종’이라는 강수까지 됐다. 송담 스님 탈종 이후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종단 평화와 쇄신을 위한 선언과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 법인법 갈등, 해결책 없나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법’은 6월 열린 중앙총회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1월 중앙총회에서 일부 개정돼 문호를 넓혔다.

하지만 선학원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

이다. 6월 30일 선학원 이사, 감사 스님들은 ‘조계종 종헌 종범을 따를 수 없다’면서 종단에 제직원을 제출하며 갈등은 커졌다. 이후 이사장 법진 스님은 별개의 징계를 받았다.

선학원은 본원장 회의를 잇달아 열며 종단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과적으로 10월 1일부로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했다. 사실상 독자 행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학원은 11월 3일 이사회에서 ‘제2정화운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내년 제2라운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8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 정상화 위원회를 종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내년 초 구성이 완료되는 위원회는 선학원과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태고종 갈등 끝이 안보이네

지난해 선출된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체제의 태고종은 1월 22일 투명화 중무행정 등 8대 핵심기조를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았

다. 이어 2월 10일 태고종 발전특위(위원장·정경조 신도회장)를 출범시키면서 종단 발전에 기틀을 닦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종단 내부에 깊은 상처는 8월 말 결국 터졌다. 원로회의는 종정 혜초스님이 재가했다며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호법원장의 동시 퇴진을 촉구했다. 이후 반대 측은 종회를 열고 도산 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별도의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종원 스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종단 대형 불사 시작 잇달아

다사다난했던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올해 성과 중 하나는 대형불사의 시작이 잇달았던 것이다.

조계종은 핵심 주요교제로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병행했다. 10.27 법난기념관 등이 지어지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해원·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국고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성역화 사업이 내년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은 3월 10일 진각문화국제체험관 및 교육관 기공식을 병행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부지 3,969.6㎡에 연면적 4,96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규모로 건축된다.

선학원도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신축 불사에 들어갔다. 11월 20일 선학원은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991.74㎡ 규모로 지어질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병행했다. 이 기념관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종단협 내년 예산 11억 여원 확정

## 17일 이사회서 결의... 내년 사업 계획 논의

### 1월 16일 조계사서 신년하례식

### 그간 동결된 회비 10% 인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2015년 예산을 11억4650만원으로 확정했다.

종단협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4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예산 안과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

했다. 이번 종단협은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7억3350만원, 특별회계 4억1300만원 등 11억4650만원으로 결정했다. 세입부에서 7년 동안 동결했던 회원종단 정기회비를 10% 인상하기로 했으며 적립금으로 종단협 사무처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행사는 신년하례회를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기로 했으며, 3월10일 오전 10시30분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서는 4~5월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14~16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하며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해외성지순례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엄종의 종단협 가입을 승인했으며, 종단 대표 및 인사이동에 따라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성문스님을 부회장으로,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스님, 법화종 총

무원장 도성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 등을 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감사는 대승종과 본원종, 미륵종에서 맡기로 결의했다.

또한 7월17일 열린 제2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회원종단 현황조사에서 활동이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밝혀진 종단에 대해서는 조정과정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이사 34명 가운데 위임 포함 3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어 높은 열로 배대를 하여도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견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